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는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기본요인

신 분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와 반동들의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어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전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130페이지)

한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성이 사라지는것보다 더 엄중한 사태는 없다. 잃었던 령도는 다시 되찾을수 있지만 사라진 민족성은 회복하기 힘들다. 한번 남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면 그 민족의 력사는 끝장나게 된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통하여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는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가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민족의 피줄을 혼탁시키고있기때문이다.

민족은 피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이다.

민족성에서 기본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다. 피줄의 공통성은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기본요인이다. 피줄이 다른 민족은 한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이 땅에 민족을 형성하고 살아온 때로부터 하나의 혈통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서 살고있지만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서로 마음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것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성에서 출발한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피줄이 혼탁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해마다 많은 혼혈아들이 생기고있는데서 나타난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인구 780명당 1명이 미국계 혼혈인이며 최근에는 3색인종을 비롯한 혼혈인만도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피줄을 흐려놓는 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서 혼혈인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우선 미제가 남조선피뢰들을 부추겨 《민족개조론》을 떠들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하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는 《국제결혼》이 합법화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국제결혼》수는 2003년에만도 2만 8 468건, 2004년에 3만 6 934건, 2005년에 4만 3 815건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전체 결혼등록건수의 10%이상, 지어는 15%계선에 이르고있다고 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도내 결혼등록건수중 《국제결혼》이 22.68%를 차지한다고 한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사회가 개방사회로 변하고있다.》, 《이제는 단일민족임을 고

집할 이유가 없다.》,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하고있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단군의 후손》, 《한피줄》, 《한겨레》 등을 강조하여온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인종, 다민족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피뢰들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등의 용어도 《다문화가정》으로 바꾸고 《국제결혼》을 합법화하고있으며 널리 장려하고있다. 《국제결혼》바람에 흥미를 느낀 수많은 청춘남녀들은 물론 지어 이미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리혼하고 외국인들과 결혼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혼혈인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은 또한 미제가 남조선에서 패륜과 패덕을 일삼으면서 남조선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하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에는 도처에 창녀들과 유곽들이 있으며 공창과 사창, 축첩제도가 성행하고있다. 미군은 남조선녀성들을 저들의 더러운 수욕을 채워주는 노리개로 여기고 강간과 룬간을 서슴지 않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통하여 퍼뜨리고있는 패륜과 패덕, 말세기적인 풍조는 오늘 남조선에서 조선민족의 피줄을 혼탁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가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민족어를 사멸시키고있기때문이다.

민족과 민족어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민족어를 빼앗는것은 민족에게 있어서 얼을 빼앗는 잔악무도한 범죄이다. 민족어를 잃은 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고 민족의 고유한 언어가 사멸되거나 동화된 민족이 자주독립에 대하여 론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식민지적지배책동에서 민족어를 말살하는데 주되는 화살을 돌리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민족어말살책동에 의하여 고유한 우리의 말과 글이 사라지고 잡탕말로 되고있다.

우선 영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되고있다.

미제는 《국제화》, 《세계화》를 떠들면서 《영어상용화》를 추진하고있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영어구역》, 《영어마을》이 생기고있으며 사대주의가 물젖은 사람들속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여기고있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존방송들에 방영되는 제목들만 보아도 우리 나라 문법에도 맞지 않고 뜻이 모호한 영어로 되어있다보니 남조선방송인지 미국방송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인사말부터 일상대화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성행하여 평상시 쓰는 말가운데서 영어단어들을 빼버리면 우리 말은 겨우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 말이 《간소화》되고있으며 잡탕말로 변하여가고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은 우리 말 《간소화》책동을 벌려왔다. 리승만 역도는 우리 말 《간소화》책동을 벌려왔다면 박정희역도와 전두환역도는 우리 말의 《맞춤법통일안》이니 《글자표기법개정》이니 하는 놀음을 벌려왔으며 로태우역도는 우리 말 《맞춤법 및 표준어규정개정안》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우리 말의 순수성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특히 남조선피뢰들은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에 편승하여 《한자병용정책》, 《외래어병용정책》을 강행추진하였다.

하여 남조선에서는 우리 말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영어, 일어, 한자를 비롯한 잡탕말로 되고있다.

남조선거리의 간판들과 광고판, 상품들이 한자어와 외래어로 된 잡탕말, 잡탕글로 되어있으며 과학, 교육, 문학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외래어와 한자어가 뒤섞인 잡탕말이 류행되고있다.

최근 피뢰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 말로 충분히 표현할수 있는 것을 외래어로 쓰고있는 말들은 100여종이 훨씬 넘고있으며 특히 그중에서 20여종은 그 사용회수에 있어서 우리 말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있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에서 사용되는 언어수만 보아도 영어, 중어, 일본어와 함께 그리스어, 에스빠냐어에 이르기까지 무려 30여개에 달하고있다.

이와 함께 제멋대로 축소한 낱말들이 성행하여 새 세대와 구세대간에 언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 해방전까지 《표준어》로 삼아오던 서울말도 변질되어 영어, 일본어, 한자투성으로 되었으며 말투와 억양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미감에 맞지 않게 변하였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은 그 순수성이 사라져가고 잡탕말과 글들에 의하여 고유한 우리의 말과 글이 사라지고 잡탕말로 되고있다.

남조선사회에 만연되고있는 잡탕말과 외래어사용풍조는 미제의 식민지적지배책동이 가져온 엄중한 후과로서 조선어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파괴, 말살하고있으며 우수한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크게 저해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가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민족문화를 말살하고있기때문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사회생활전반에 미국식생활양식이 만연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민족문화는 력사발전의 전 행정에서 민족이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의 총체로서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사상문화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문학예술의 특성을 리용하여 자기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고 사람들속에 저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민족문화발전을 억제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우선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유구한 민족문화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가 판을 치고있다.

미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의 문화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서방의 반동문화예술을 그대로 본따 양키화, 왜색화되고있다.

미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편승하여 남조선피뢰들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한다는 미명아래 서방자본주의문화의 수입과 모방에 열을 올리고있다. 하여 남조선문화는 민족적특성을 잃어버린 주인이 없는 《잡초문화》, 《쓰레기문화》로 되고있다.

또한 미제가 퍼뜨린 미국식생활양식에 의하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유린, 말살되고 사회전반에 패륜과 패덕이 판을 치고있다.

미국식생활양식은 미제국주의자들의 활동방식이며 생활률리로서 부르쥬아생활양식

운데서도 가장 반동적인것이다. 미국식생활양식의 본질적특징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주의, 사기와 협잡, 패륜과 패덕, 인간증오와 야수성, 야만성이다. 미국식생활양식은 오늘 남조선에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고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자식과 부모사이의 도덕이 없어져가고있다. 남조선의 신문이나 방송들에서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내다버린 행위, 때리거나 골방에 가두어놓고 구박한 행위, 지어 목졸라죽이거나 때려죽이는것과 같은 살해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매일이다싶이 보도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각종 사기, 협잡, 강도, 폭행, 인신매매, 마약사용이 성행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강도들이 백주에도 횡행하고있다. 2~3명씩 조를 무은 강도단은 대낮에도 흥기를 들고 날치고있다. 인신매매행위는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1991년 한해에 서울지역에서 드러난 인신매매조직만도 무려 21개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약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마약이 성행하여 강도단이나 유흥업소, 미군기지촌《위안부》들의 범위를 벗어나 학생, 공무원, 가정부인, 예술인, 농민들에게까지 파급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이밖에도 옷차림과 머리단장, 얼굴모양 등에서 양풍을 본따는 기형적이며 변태적인 유행이 널리 퍼지고있다.

남조선에 부식된 패륜패덕은 사람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극히 반동적인 작용을 놓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는 남조선에서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로 인한 민족이질화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감으로써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것이다.